

##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개념과 그 기능

### 4:1-8을 중심으로

#### 서론

##### 1. 문제 제기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만큼 ‘하늘’의 정황을 빈번하게 소개하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만큼 ‘하늘’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늘’을 요한계시록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의 배경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적이고 현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므로 ‘하늘’의 정황은 언제나 ‘내가 본 천국’의 주요 메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의 ‘하늘’은 내가 본 천국의 내용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기독교 신앙은 지나치게 피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는 재고되어야 하며 요한계시록의 고유한 문맥에서 사려 깊은 주해 작업을 통해 ‘하늘’의 개념과 그 기능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2. 목적과 기여

일차적으로 본 글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늘’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지나치게 내세 지향적인 신앙의 형태가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가져 오게 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신앙 생활 형태도 역시 획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 3. 연구 방법과 한계

본 논문의 연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세대주의적 해석을 대화의 상대로 설정함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은 문자적 해석을 추구한다. 이러한 해석 방법론은 요한계시록에서의 ‘하늘’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 들여 그 의미를 지나치게 내세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세대주의적 요한계시록 해석의 대표 주자는 Hal Lindsey와 J. F. Walvoord이다. 전자는 좀 더 선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여 놓은 반면 후자는 좀 더 이론적 체계를 세워 놓고 있다. 이들의 작품들은 번역되어 한국 교회에도 널리 읽혀져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은 매우 절실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이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라는 용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만하게 널려 있다. 모두 50개의 절에 6가지 형태로 52번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되는 경우를 모두 다 연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기 유대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사상적 배경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지

만 이 논문에서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정황을 좀 더 중요하게 취급하여 4장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게 될 것이다. 나머지에 대한 연구는 다음 작업으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장은 1-2a의 도입 부분과 2b-8절의 하늘 환상의 구체적 내용과 9-11절의 찬양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9-11절에 대한 연구는 하늘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본론: 본문 연구

### 1.1. 하늘 환상의 도입(1-2a)

#### 1.1.1. 이 일 후에(1절)

이 문구에 대해 가지게 되는 첫 인상은 사건을 시간적으로 배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문구를 시간적 의미로 간주하여 2-3장과 4장 사이를 시간적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sup>1</sup> 이러한 입장은 1:19의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ἃ εἶδες καὶ ἃ εἰσὶν καὶ ἃ μέλλει γενέσθαι μετὰ ταῦτα)이라는 문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되었다고 간주하는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서 ‘네 본 것들’(ἃ εἶδες)은 과거 사건으로서 1:13-18에서 보여진 환상들을 가리킨다. 이것들은 1세기의 사건들과 관련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ἃ εἰσὶν)은 현재 사건으로서 2-3장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것은 1세기에서 대환란의 시작 때까지를 가리킨다. 2-3장의 일곱 교회를 교회 역사 전체를 일곱 등분하여 보여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sup>2</sup> 그리고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마지막 시대이며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장차 될 일들’(ἃ μέλλει γενέσθαι μετὰ ταῦτα)은 4-22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역사의 종말 직전에 시작되는 대환란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

<sup>1</sup> 이들중 대표적 학자는 바로 J. F. Walvoord이다. 그는 이 표현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Chicago: Moody Press, 1966; paperback edi., 1989], 101-102).

<sup>2</sup> H. Lindsey, *There's a New World Coming* (Irvine, California: Harvest House Publishers, 1973), 41.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Here in seven typical churches we see the predominant characteristics of seven successive eras of church history”(ibid.). 그는 각 교회의 경우에 ‘Prophetic Application’이라는 제목하에 연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까지 한다: 1)에베소 교회: A.D. 33-100(the Apostolic church era); 2)서머나 교회: A.D. 100-312(the great era of persecution); 3)버가모 교회: A.D. 312-590(the era that the church merged with the state); 4)두아디라 교회: A.D. 590-1517(the Middle age); 5)사데 교회: 1517-1750(the Reformation Era); 6)빌라델비아 교회: 1750-1925(the great missionary era of the Church); 7)라오디게아 교회: A.D. 1900-환란의 때(Laodicean lukewarmness)(ibid., 38-73).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로 유명한 이광복 목사도 이 견해를 따른다. 그는 그의 요한계시록 강의록에서 2-3장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서술하지만 그 중 두 번째는 다음과 같다: “본서가 예언서이므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예언적으로 교회사의 일곱 시대를 예언하는 것으로 본다”(이광복, 『그리스도 재림의 성경적 역사성: 성경적 종말론』, 167). 그리고 이광복 목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1)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 사도시대; 2)서머나 교회: 박해시대→ 초대 교회에서 313년의 콘스탄틴 대제 시대까지; 3)버가모 교회: 로마 국교회 시대; 4)두아디라 교회: 암흑시대; 5)사데 교회: 종교 개혁 시대; 6)빌라델비아 교회: 선교시대; 7)라오디게아 교회: 종말시대(앞의 책, 167-185). 이러한 이광복 목사의 구분은 충실한 세대주의자인 H. Lindsey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를 포함한다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보면 4:1의 ‘이 일 후에’라는 문구는 2-3장의 현재적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4장 이후에 기록했다고 간주하는 견해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4:1의 ‘이 일 후에’라는 문구에 대한 이해는 1:19에 대한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19을 과거(1장)와 현재(2-3장)와 미래(4-22장)로 삼등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sup>4</sup> 그것은 바로 2-3장과 4-22장을 현재적 시점과 미래적 시점으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2-3장에 단순히 현재적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적 내용도 포함한다. 그리고 4-22장은 미래적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적 사건도 중요하게 취급한다.<sup>5</sup> 그러므로 2-3장과 4-22장을 각각 현재와 미래적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부분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서론과 결론과 본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순서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그러므로 우리 말 번역에 ‘이 일 후에’는 ‘이 후에’라고 번역함으로써 시간적 순서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곧 ‘이 후에’라는 문구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환란의 시대의 출발로서 4장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2-3장을 서론으로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고 본론 부분이 4장을 기록하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2-3장과 4장은 논리적 관계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이 후에’라는 문구가 사용되는 본문에는 항상 ‘내가 보았다’(εἶδον)라는 동사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곧 ‘이 후에’라는 문구가 사용되는 본문은 7:1; 7:9; 15:5; 18:1인데 이곳에 바로 ‘내가 보았다’라는 문구가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다.<sup>7</sup> 그런데 ‘이 후에 내가 보았다’라는 문구는 새로운 환상을 도입하는 도입 문구로서 간주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논점은 앞에서 논의 된 것

---

<sup>3</sup> R. L. Thomas, “The Chronological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2-3,” *Bibliotheca Sacra* 124 (1967), 2-3. 이러한 입장은 H. Lindsey에 의해서 매우 보편화되었다(H. Lindsey, *There's a New World Coming*, 36).

<sup>4</sup> W. J. Harrington에 의하면 1:19의 문구의 구성을 “A common formula to describe prophecy”라고 규정하고 1:19의 문구를 “the whole of John's vision”이라고 매우 적절하게 지적한다. 그는 그의 주장의 근거를 W. C. van Unnik, “A Formula Describing Prophecy,” *NTS* 9 (1963), 86-94에서 찾고 있다.

<sup>5</sup>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161. 1:19에 대한 여러 다양한 입장과 그것들의 비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자세한 설명은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152-170을 참조하라. 2-3장이 과거 사건에 관한한은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다시 언급하고 있으며 미래 사건에 관한한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소개하고 있다. 4-22장에서도 7장과 12장은 교회 공동체의 현재적 정황을 서술하고 있다(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주해와 설교』 (서울: 이레서원, 2007), 357-383; 523-559를 참조하라).

<sup>6</sup>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는 R.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T Clark, 1993), 1-37을 참조하라. 그는 요한계시록을 1:1-8을 프롤로그요 22:6-21을 에필로그로 분류하고 1:9-3:20을 서론으로 4-16장을 본론 그리고 17:1-22:5을 결론으로 구분하되 바벨론의 심판을 중심으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17:1-20:15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중심으로 회복의 완성을 말하는 21:1-22:5을 이중적 결론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통해 2-3장과 4장은 논리적 관계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sup>7</sup> 19:1에서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난다. 곧 ‘εἶδον’라는 동사 대신에 ‘ἤκουσα’가 사용된다.

<sup>8</sup> G. R. Osborne,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2002), 223.

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 1. 1. 2.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1a)

먼저 몇몇 유대적 자료에서 보여주는 ‘열린 문’(θύρα ἠνεωγμένη)의 공통적 기능은 계시적 장면(a revelatory scene)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표기와 평행되는 자료로서 먼저 예녹1서 14:14-15을 들 수 있다.

And as I shook and trembled, I fell upon my face and saw a vision. And behold there was an opening before me (and) a second house which is greater than the former...<sup>10</sup>

그리고 *Apoc. Paul* 21:24-28은 하늘의 열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Paul, come! [Proceed toward me!] Then as I [went], the gate opened, [and] I went up to the fifth [heaven].” 이 자료에서는 ‘열린 문’(the gate opened)라는 문구가 명백하게 존재한다. *T. Levi* 2:6의 경우에는 ‘문’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4:1의 본문과 밀접한 평행을 이루고 있다: “And behold the heavens were opened and an angel of God said to me, ‘Come in, Levi.” 이러한 용례들을 통해 볼 때 ‘하늘에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에 하나님의 계시적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표시로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에 ‘하늘의 열려진 문’이라는 문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에덴에서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합되어 존재하였다. 하나님은 에덴을 거처로 삼으심으로 그곳을 거니셨다(מתהלך) (창 3:8). 에덴이 곧 하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에덴을 폐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을 닫으셨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되었다. 타락한 이후로 하늘이 열리는 최초의 사건은 창 28:17의 베델 사건이다.

17) a) καὶ ἐφοβήθη καὶ εἶπεν ὡς φοβερός ὁ τόπος οὗτος οὐκ ἔστιν τοῦτο

b) ἀλλ’ ἡ οἴκος θεοῦ καὶ αὕτη ἡ πύλη τοῦ οὐρανοῦ

וַיֵּרָא וַיֹּאמֶר מִה־נִּזְרָא הַמָּקוֹם הַזֶּה אֵין אֵין <sup>17</sup>

כִּי אִם־בַּיִת אֱלֹהִים זֶה שַׁעַר הַשָּׁמַיִם:

위의 창세기 본문에서 ‘문’은 ‘ἡ πύλη’(LXX) 혹은 ‘שַׁעַר’(MT)로 각각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하늘 문의 열림은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 6장에서 이사야의 경험은

<sup>9</sup> D. Aune, *Revelation 1-5*, WBC 52 (Dallas, Texas: Word Books, 1997), 281.

<sup>10</sup> 이 본문은 *OTP* 1:21에서 E. Isaac의 번역을 사용하였음.

성전이 열려진 하늘의 문의 현상임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준다. 바로 베엘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명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늘의 열림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절정에 이른다.

βαπτισθεί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ὐθὺς ἀνέβη ἀπὸ τοῦ ὕδατος· καὶ ἰδοὺ ἠνεώχθησαν [αὐτῷ] οἱ οὐρανοί  
· καὶ εἶδεν [τὸ] πνεῦμα [τοῦ] θεοῦ καταβαίνον ὡσεὶ περιστερὰν [καὶ] ἐρχόμενον ἐπ’ αὐτόν·(마  
3:16)

위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로부터 올라 오셨을 때 하늘들이 열려졌다(ἠνεώχθησαν [αὐτῷ] οἱ οὐρανοί).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내려 오셨다.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에게로 하늘이 열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ἠνεώχθησαν’ (<ἀνοίγω>)라는 동사는 요한계시록 4:1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정과거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문’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서 하늘의 열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ἀμήν ἀμήν λέγω ὑμῖν, ὄψεσθε τὸν οὐρανὸν ἀνεωγῆτα καὶ τοὺς ἀγγέλους τοῦ  
θεοῦ ἀναβαίνοντας καὶ καταβαίνοντας ἐπὶ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요 1:51)

위의 본문에서 하늘이 열리게 되는 사건을 요 1:51에서 이어지는 2:1-11에서의 가나 혼인 자치 사건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sup>11</sup> 예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나타남이 절정에 이르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sup>12</sup> 어느 경우든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과 그의 사역이 이제껏 예비된 하나님의 계시의 총결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그 계획을 알리는 하늘의 계시를 접할 수 있는 영광을 부여 받는다.

이러한 복음서 전승의 맥락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sup>13</sup>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내에 복음서 전승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sup>14</sup> 곧 예수님의

<sup>11</sup> F. Moloney, *The Gospel of John*, SACRA PAGINA 4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8), 57. Moloney에 따르면 “Such expectation is nourished by words that follow 1:19-51: “And on the third day ...” (2:1).

<sup>12</sup>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165.

<sup>13</sup> Osborne은 계 ‘하늘의 열린 문’을 이러한 복음 전승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시도한다(G. R. Osborne *Revelation*, 224).

<sup>14</sup> 이에 대해서는 Louis A. Vos *The Synoptic Traditions in the Apocalypse* (Kampen: J. H. Kok, 1965). Vos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요한계시록과 복음서 전승과의 관련성을 증거한다: “... not once does John ever quote the words of Jesu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His pen never records such instructive and elucidating words as “For our Lord said” or “As Jesus once promised.” ... All of the references to the sayings of Jesus in the Apocalypse are indirect, and could possibly be included under the one heading of allusions to the sayings of Jesus. But in our study we notice that John employs the words and concepts of Jesus to a greater extent in some passages than in others” (ibid., 54). 그러나 Vos는 계 4:1의 하늘 문의 열림과 마 3:16/요 1:51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사역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제 요한은 이처럼 열려진 하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속적 계시 에 있지 그것을 벗어난 불특정 다수의 사건들이 아닌 것이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계시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매우 절제된 방법으로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한 구속적 계시를 전달한다.

### 1.1.3.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1b)

이 문구에 대한 이해는 앞에서 논의한 ‘이후에’(Μετὰ ταῦτα)라는 문구와 1:19의 “이후에 장차 될 일들’(사역)(ὃ μέλλει γενέσθαι μετὰ ταῦτ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것들은 4장과 그 이후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미래에 대한 일들을 가리키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강화시켜 주고 있다. Walvoord에 의하면 이 문구는 1:19의 ‘장차 될 일’과 비슷한 말이라고 하면서 1:19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순히 가리켰는데 4장에서 이 문구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다고 한다.<sup>15</sup> Walvoord는 미래적 사건의 예시에 필연성을 더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문구는 1:1의 ‘반드시 속히 될 일’(ὃ δεῖ γενέσθαι ἐν τάχει)과 1:19의 ‘장차 될 일’과 함께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이 세 문구는 공통 분모로서 배경이 되는 구약 본문은 단 2:28-29의 말씀이다.

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ὃ δεῖ γενέσθαι ἐπ’ ἐσχάτων τῶν ἡμερῶν)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ὃ δεῖ γενέσθαι)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세 문구와 다니엘서의 두 구절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단 2:28	단 2:29	1:1	1:19	4:1
ὃ δεῖ γενέσθαι ἐπ’ ἐσχάτων τῶν ἡμερῶν(2:28)	ὃ δεῖ γενέσθαι(2:29)	ὃ δεῖ γενέσθαι ἐν τάχει	ὃ μέλλει γενέσθαι μετὰ ταῦτα.	ὃ δεῖ γενέσθαι μετὰ ταῦτα.
날들의 마지막에 될 일들	후일에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후에) 장차 될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위의 다니엘서 본문에서 ‘후일에’(직역하면 ‘날들의 마지막에’)(ἐπ’ ἐσχάτων τῶν ἡμερῶν)라는 문구는 1:19과 4:1에 사용된 ‘이후에’(μετὰ ταῦτα)라는 문구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그러나 단순히 동의어가 아니라 해석적 동의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다니엘서의 문구는 단순한 미래적 종말의 시점을 전망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문구는 신약의 공통된 개념이 되어 버린 종말의 이중성이 적용되어 미래적 종말의 시점 뿐만이 아니라 실현된 종말도 포함하지 않을 수 없

<sup>15</sup> 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A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6; paperback edi., 1989), 59.

<sup>16</sup> G. K. Beale, *Revelation*, 317.

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종말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다니엘 2장에서 약속한 날들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성의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19과 4:1의 ‘이후에’는 단 2:28의 ‘후일에’의 동의어로서 이미 실현된 종말적 시점과 미래에 완성될 시점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의 ‘속히’(ἐν τάχει)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문구 역시 위의 비교에서 보듯이 다니엘서의 ‘후일에’(ἐπ’ ἐσχάτων τῶν ἡμερῶν)라는 말을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여기에서 ‘속히’라는 문구의 사용은 어떤 속도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현재에 시작된 ‘성취의 급박한 시점’(imminent time of fulfilment)을 나타내고 있다.<sup>18</sup>

그런데 단 2:28-29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보여 주시고자 하셨던 ‘후일에 마땅히 될 일들’은 무어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인 것이다(참조 2:44-45).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다니엘서의 메시지의 본질을 계승한다. 이것은 4:1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문구가 불특정 다수의 역사적 사건들을 막연하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적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사건에 주된 관심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9</sup> 지금 요한에게 하늘에서 보여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것이 그 문이 열려진 하늘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조화롭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곧 종말적 성취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의 사용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1:1) 혹은 ‘마땅히’(4:1)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δεῖ’라는 단어에 대한 다른 번역이다. 이 단어는 신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 단어는 마 16:21; 막 8:31; 눅 9:22; 24:7; 요 12:34; 20:9 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사용된다. 곧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일어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우연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다. ‘δεῖ’의 이러한 개념을 위의 문구에 적용한다면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반드시 될 일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뜻과 관련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열려진 하늘은 바로 실현되고 완성될 신적 계획으로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도래와 미래적 완성을 소개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곧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이 발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세워지고 발표되는 곳이다. 이것은 다음에 보여지는 이미지로서 ‘보좌’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좌’는 하늘 환상의 핵심이다. 이러한 이해는 4장의 하늘을 휴거한 교회가 대환란을 도피해 있는 장소로서 해석하는 것이

<sup>17</sup> 앞의 책, 181.

<sup>18</sup> 앞의 책, 181.

<sup>19</sup> H. Lindsey는 4:1의 이 문구에서 ‘이 후에’(μετὰ ταῦτα)의 ‘이(것들)’(ταῦτα)을 2-3장의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견해에 근거해서 이 말을 풀어 말하면 ‘교회 시대가 다 끝난 후에’라는 의미를 갖는다(H. Lindsey, *There's A New World Coming*, 83).

나 혹은 4장 이후의 내용을 단순히 미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sup>20</sup>

#### 1.1.4. 즉시로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2a).

이 문구는 우리말 성경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 문구의 정확한 번역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요한은 지금 성령 안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령은 환상적 계시를 경험하는 에이전트로서 기능을 한다.<sup>21</sup> ‘성령 안에 있다’(γενέσθαι ἐν πνεύματι)는 것은 성령에 의한 환상적 경험에 대한 전문용어(technical term)로서 사용된다.<sup>22</sup>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환상적 경험의 에이전트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민 24:2, 4, 16-17; 참조 민 11:24-29; 삼상 10:6, 10).<sup>23</sup> 에스겔이 환상적 계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에이전트로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두드러진다(3:12, 14; 8:3; 11:1, 24; 37:1; 43:5; 참조 왕상 18:12과 왕하 2:16에서 엘리야).<sup>24</sup> 특별히 요엘서 2:28에서는 성령의 종말적 오심의 표시로서 꿈과 환상을 명시한다.<sup>25</sup> 이상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성령 안에’(ἐν πνεύματι)라는 문구는 성령을 통해 환상적 계시가 주어지는 환경이 주어진다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즉시로’(εὐθέως)라는 말은 1절과의 시간적 연속성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2a의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은 1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경험에 이은 두 번째 환상의 경험이 될 수 있다. 1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 소개될 때 요한은 이미 2a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2a에서 요한이 ‘즉시로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였을 때 두 번째 환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될 수 없다.<sup>26</sup>

## 2. 하늘 환상의 내용(2b-6절)

하늘에 대한 환상은 보좌 자체에 대한 것과 보좌 주변에 대한 것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2b-3절에서 소개되고 후자는 4-8절에서 소개되고 있다.

---

<sup>20</sup> H. Lindsey에 의하면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의 부재로 인하여 교회는 휴거하고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4장의 하늘은 교회가 휴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장치로 취급된다(H. Lindsey, *There's A New World Coming*, 74-88). Walvoord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조한다: “From a practical standpoint, however, the rapture may be viewed as having already occurred in the scheme of God before the events of chapter 4” (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03).

<sup>21</sup> R.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154.

<sup>22</sup> 앞의 책, 152.

<sup>23</sup> 앞의 책, 154.

<sup>24</sup> 앞의 책, 154.

<sup>25</sup> 앞의 책, 154.

<sup>26</sup> 앞의 책, 153-154.

## 2.1. 보좌에 대한 환상(2b-3절)

보좌에 대한 환상은 보좌 자체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무지개와 보석 모티브로서 구성된다.

### 2.1.1.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2b)

2b에 의하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ἰδοὺ θρόνος ἔκειτο ἐν τῷ οὐρανῷ)고 말한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이 그의 환상적 경험에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좌’이다. 먼저 이 보좌는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서 ‘짐승의 보좌’(16:10)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네로’ 황제를 그 모델로 삼아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대비에 의해 ‘보좌’라는 이미지는 로마 황제의 존재를 의식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늘의 존재들은 이 보좌를 중심으로 그 위치가 형성된다. 4:3의 무지개와 4:4의 24개의 보좌들이 ‘보좌 주위에’(κυκλόθεν τοῦ θρόνου) 있으며 4:5에서 ‘보좌로부터’(ἐκ τοῦ θρόνου) 번개, 음성,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ἐνώπιον τοῦ θρόνου) 일곱 등불이 타오르고 있으며 4:6에서는 보좌 앞에(ἐνώπιον τοῦ θρόνου)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으며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ἐν μέσῳ τοῦ θρόνου καὶ κύκλῳ τοῦ θρόνου) 네 생물이 있다. 하늘의 중심은 바로 보좌인 것이다. 이러한 그림은 하늘을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으로 보는 요한의 해석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

보좌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ἐπὶ τὸν θρόνον καθήμενος)가 있다. 이 문구는 요한계시록에서 변형된 형태로는 4:2 (ἐπὶ τὸν θρόνον καθήμενος), 4:3 (ὁ καθήμενος); 7:10 (τῷ θεῷ ἡμῶν τῷ καθιμένῳ ἐπὶ τῷ θρόνῳ); 19:4 (τῷ θεῷ τῷ καθιμένῳ)에서 나타나고 있고 정확한 형태(ὁ καθήμενος ἐπὶ τοῦ θρόνου)로는 모두 일곱 번 나타나고 있다(4:9; 5:1; 5:7; 5:13; 6:16; 7:15; 21:5).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빈번한 사용은 이 문구가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sup>27</sup>

이러한 문구가 ‘하늘’의 환상 중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하늘의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제시해 주고 있다. 다음의 Bauckham의 말은 이러한 ‘하늘’의 기능에 대한 매우 탁월한 이해를 돕는다.<sup>28</sup>

In chapter 4 God's Sovereignty is seen as it is already fully acknowledged in heaven. This establishes it as the true reality which must in the end also prevail on earth. On earth the powers of evil challenge God's role and even masquerade as the ultimate power over all things, claiming divinity. But heaven is the sphere of ultimate reality: what is true in heaven must become true on earth.

위의 인용에서 하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실체를 갖는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

<sup>27</sup> R. Bauckham,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1.

<sup>28</sup> 앞의 책, 31.

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와 동일한 원리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압도하는 것처럼 가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현상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모든 실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보좌’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적 배경과 유대 묵시적 배경을 갖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왕상 22:19-23,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장 그리고 단 7:9-10 같은 내용이 되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녹 1서 14과 60:1-6 그리고 예녹 2서 20-21장과 아브라함의 묵시(Apocalypse of Abraham)15-18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29</sup>

### 2.1.2. 보석 모티브(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그리고 무지개(3절)

3절은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두 개의 아이템을 소개한다. 그것은 보석과 무지개이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형상에 주력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한다.<sup>30</sup> 그것은 바로 보석 모티브이다. 보석은 벽옥(ἰασπις), 홍보석(σάρδιον), 남보석(σμαράγδινος)과 같은 세 종류의 보석이 등장한다. 3절의 전반부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보석의 모양(ὄρασις)과 같다(ὅμοιος)’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두 개의 단어 ‘ὅμοιος’와 ‘ὄρασις’는 보석에 대한 묘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전자는 ‘... 같다’(like, similar)의 의미를 가지며 후자는 ‘모양’(sight, appearanc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벽옥과 홍보석의 모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모양’은 단순히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의 겉모양에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보석과 같은 돌과 같은 모양일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화 할 수 없다.

벽옥과 홍보석 외에 녹보석이 하나 더 등장한다. 3절의 후반부에서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ἵρις κυκλόθεν τοῦ θρόνου ὅμοιος ὄρασει σμαραγδίνῳ)라는 문구에서 ‘그 모양’이란 무지개가 아니라 보좌의 모양을 가리키고 그것이 바로 ‘녹보석’ 같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양에 해당되는 단어인 ‘ὅμοιος’는 성이 남성이지만 무지개(ἵρις)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서 남성 명사는 ‘보좌’(τοῦ θρόνου)이므로 그 모양은 ‘보좌’의 모양을 가리키며 그 보좌의 모양이 바로 녹보석같다라고 말한다. 이상에서 벽옥과 홍보석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으로서 언급되고 녹보석은 보좌를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석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의 모양에 비교되는 것은 바로 보석의

---

<sup>29</sup> 앞의 책, 31.

<sup>30</sup> 앞의 책, 32.

속성일 것이다. 보석의 핵심은 바로 ‘광채’에 있다. 이 광채는 색깔로 나타난다.<sup>31</sup> 그래서 벽옥은 보통 붉은 색을 띠고 있지만 때로는 녹색을 가진다.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 색을 띠고 있고 남보석은 선녹색을 띠고 있다. 그러나 보석들의 다양한 색깔들에 일일이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위적일 수 있다.<sup>32</sup> 다만 보석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색깔의 순수함과 화려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색깔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색깔과 같으신 분이시다.

이것은 겔 1:26-27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곧 1:26에서 보좌를 남보석(요한계시록에서는 녹보석이라고 번역)으로 말하고 1:27에서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에게서 사방으로 나는 광채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잘 설정해 준다. 먼저 이러한 보석 모티브는 겔 1:26-27과 10:1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6)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겔 1:26-27)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겔 10:1)

위의 에스겔서의 본문은 하늘 보좌를 묘사하고 있다. 목록들에 일일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장엄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sup>34</sup>

그리고 이 보석 모티브는 하늘의 존재를 에덴과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사렘에 관련시키고 있다. 다음의 구약 성경 본문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sup>35</sup>

(A)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겔 28:13)

(B)17)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18)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청보석 금강석 19)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20)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 테에 물릴지니 (출 28:17-20)

<sup>31</sup> D. Aune, *Revelation*, 285.

<sup>32</sup> Walvoord는 각각의 보석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다. 벽옥은 하나님의 순결함(purity), 홍보석은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04). H. Lindsey는 벽옥은 “the glowing radiance of God’s holiness and flawless perfection”을 나타내 주고 홍보석은 “the immense value of the shed blood of Jesus Christ”를 드러내 준다(H. Lindsey, *There’s a New World Coming*,” 84. 이러한 상징적 해석은 어떠한 구약의 배경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레고리적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up>33</sup> G. R. Osborne, *Revelation*, 227.

<sup>34</sup>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320. R. Bauckham은 이 보석들이 ‘the splendour of a heavenly future’를 자아내는 방법이라고 말한다(ide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32).

<sup>35</sup>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주해와 설교』 (서울: 이레서원, 2007), ,

(C)11)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12)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사 54:11-12)

	표현 양식	위치
4:5	번개, 음성, 우렛소리	하늘 성전 환상
8:5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일곱 번째 인 심판
11:19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일곱 번째 나팔 심판
16:18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 큰 우박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위의 본문에서 A(겔 28:13)는 에덴 동산 그리고 B(출 28:17-20)는 제사장에 의해 대표되는 성전에 대한 것이며 C(사 54:11-12)는 회복된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모두 보석 모티브에 의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가지는 바로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성취적 요소들이다. 성전은 에덴의 회복으로서 주어지고 새 예루살렘은 성전의 완성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이러한 보석들에 비유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과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자로서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서 4:3의 보석들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재차 사용된다: 벽옥은 21:11, 18, 19; 남보석은 21:20 그리고 녹보석은 21:19에서 각각 등장한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가 새 예루살렘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별히 ‘벽옥’은 4:3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기 위해 첫번째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첫번째 보석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은 ‘벽옥’이라는 보석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sup>36</sup>

그리고 ‘무지개’(ἶρις)는 보좌 주위에(κυκλόθεν) 둘러 있다. 이러한 무지개는 겔 1:27-28의 장면을 연상케 한다.

27)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1:27-28)

위의 에스겔 본문에 의하면 ‘무지개’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ἡ ὄρασις ὁμοιώματος δόξης κυρίου)으로서 묘사한다. 곧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을 반영한다. 이러한 무지개의 속성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잘 적용될 수 있다. 곧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무지개는 보좌 주위에 둘러 있어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준다.

더 나아가서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시로서 등

<sup>36</sup>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320-321.

장한다(참조 창 9:8-17).<sup>37</sup> 노아 언약의 핵심은 피조 세계의 보존에 있다.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 달리 칭하기도 한다.<sup>38</sup>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그의 피조물에까지 확장된다.<sup>39</sup> 이러한 언약적 상징으로서 무지개가 보좌 주위에 둘러 있다는 것은 이 우주를 회복하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은 피조물의 원천으로서 존재한다.<sup>40</sup>

## 2.2. 보좌 주위에 대한 환상(4-8절)

보좌 주위에 대한 환상은 ‘보좌 주위에’(κυκλόθεν τοῦ θρόνου) 혹은 ‘보좌로부터’(ἐκ τοῦ θρόνου) 혹은 ‘보좌 앞의’(ἐνώπιον τοῦ θρόνου)라는 문구에 의해 수식된다. 이러한 환상의 목록으로는 24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들, 번개와 천둥과 우렛소리, 보좌 앞의 일곱 등불과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 그리고 네 생물이 있다.

### 2.2.1. 24 보좌들의 24 장로들(4절)

보좌 주위에(κυκλόθεν τοῦ θρόνου)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그것은 스물 네개의 보좌들(θρόνους εἴκοσι τέσσαρες)이 있고 그 보좌들에 스물 네 명의 장로들(ἐπὶ τοὺς θρόνους εἴκοσι τέσσαρες πρεσβυτέρους καθημένους)이 앉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들의 의미는 여러가지 견해로 갈려져 있으나 이들을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 주는 상징적 이미지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sup>41</sup> 왜냐하면 24라는 숫자가 12가 두 개 더해져서 형성된 숫자이기 때문이다. 두 개의 12는 열 두 지파와 열 두 사도를 연상케 한다.

여기에서 논의의 초점은 24 장로를 통한 교회 공동체의 천상적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좋은 대화의 상대는 역시 Walvoord이다. 그에 의하면 24장로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하나 그것을 지상으로부터 휴거하여 하늘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2</sup> 이것은 2-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기록을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교회 시대로 간주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sup>43</sup> 곧 4장의 24 장로에 의해 상징되는

---

<sup>37</sup>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Downers Grove: IVP, 2005), 115; W. J. Harrington, *Revelation*, 79.

<sup>38</sup> O. P.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 (Grand Rapids: Baker, 1980), 109-125.

<sup>39</sup>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115.

<sup>40</sup> 이 주제에 대해서는 4:7-8에서 언급되는 ‘네 생물’에 대한 논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하도록 한다.

<sup>41</sup>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자세한 논의는 이필찬의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2006, 6<sup>th</sup> edi.), 65쪽과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116을 참조.

<sup>42</sup> 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03.

<sup>43</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 2번을 참조하라. Walvoord는 이러한 과정을 “the church age first, then the rapture, then the church in heaven”이라는 문구로 표현한다(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03).

교회 공동체의 천상적 존재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 할 때 비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4장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천상적 존재는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4장의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의도를 외면한 결과이다. 4장의 중심된 상징적 이미지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이다. 이 이미지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적 통치의 발현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현재성에 대해 R. Bauckham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In chapter 4 God's sovereignty is seen as it is already fully acknowledged in heaven. This establishes it as the true reality which must in the end also prevail on earth.<sup>44</sup>

God as the One who sits on the throne is at present in heaven and acts on earth only through angelic intermediaries.<sup>45</sup>

위의 인용글에 의하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현재적 주권에 동참하고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들 역시 현재적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보좌들에 앉아 있는 24장로의 이미지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현재 하늘에 존재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최초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현재이고 21세기의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현재이다.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천상의 현재적 위치를 경험한다.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성격을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인 것이다.

끝으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들은 제의적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4:9-10; 5:8-11; 11:16-18, 19:4) 또한 그들은 보좌에 앉아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참조 1:6)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46</sup>

## 2.2.2.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5a)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ἀστραπαὶ καὶ φωναὶ καὶ βρονταὶ)는 모두 복수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번개들과 소리들과 우렛소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보좌로부터’(ἐκ τοῦ θρόνου) 나온다. 5절에서 ‘보좌로부터’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놓여 있어 강조된다. 번개/음성/우렛소리는 출 19:16-18(참조 히 12:18-21)의 시내산 신적 현현과 겔 1:13의 ‘chariot vision’을 함께

<sup>44</sup> R.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31.

<sup>45</sup> 앞의 책, 46.

<sup>46</sup> Pilchan Lee, *The New Jerusalem in the Book of Revelation*, WUNT II/129 (Tübingen: Mohr Siebeck, 2001), 249.

연상시킨다.<sup>47</sup> 출 19:9에서 하나님은 뽀뽀한 구름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출 19:16에서 우레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 그리고 18절에서는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 그리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이러한 현상은 출 20장에서 또 한번 재현되는데 출 20:18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타난다.<sup>48</sup>

이러한 현상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미 일어난 바 있다. 창 19:28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올라 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위해 오셔서 그것들을 멸망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9</sup> 창 19:28에서 사용된 ‘연기’라는 단어는 ‘קָטַן’<sup>50</sup>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קָטַן’의 단어 그룹에 속한다. 이 단어는 주로 희생 제물이나 번제 제물에 대해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께 희생 제물인 것이다.<sup>50</sup>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 등과 함께 일어난 현상으로서 연기는 심판의 의미를 함축한다. 율법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심판을 가져 온다.<sup>51</sup>

그렇다면 계 4:5의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와 시내산의 하나님의 신적 현현의 현상과 평행적 관계는 하늘에서의 환상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한다.<sup>52</sup> 곧 이러한 종말론적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하늘의 기능이 이러한 종말적 사건을 결정하는 곳으로서 드러내 주고 있다.<sup>53</sup> 이러한 점에서 Walvoord가 말하는 것처럼 계 4:5의 ‘번개, 음성, 우렛소리’를 7년 대환란(the great tribulation)에서 오게 되어 있는 심판들에 대한 예고 정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sup>54</sup>

<sup>47</sup> R.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202.

<sup>48</sup> 1Enoch 1:3-9; 102:1-2; Testament of Moses 10:1-7; 2Bar 32:1등에서 이러한 현상은 종말적 신적 현현 (eschatological theophany)을 수반한다(R.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199). D. Aune은 Bauckham이 계 4:5의 번개/음성/우렛소리를 출 19:16-18의 시내산 사건과 관련시키려는 것을 과장했다고 비판한다: “While Bauckham... is the only one who has discussed these lists in some detail, he exaggerates the conscious influence of the Sinai tradition.” 반면에 그는 계 4:5의 그 문구를 그리스 신화와 관련시킨다: “The thunderbolt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Greek god Zeus, as it was with his Roman counterpart Jupiter, and was consequently used as a symbol suggesting the divinity of several Roman emperors including Domitian...”(D. Aune, *Revelation*, 295). 그러나 이러한 Aune의 입장은 본문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sup>49</sup> J. J. Niehaus, *God at Sinai: Covenant & Theophany in the Bible and Ancient Near East*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5), 196.

<sup>50</sup> Idem, *God at Sinai*, 196.

<sup>51</sup> 앞의 책, 196.

<sup>52</sup> R.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203.

<sup>53</sup> Pilchan Lee, *The New Jerusalem in the Book of Revelation*, 250. 이와 관련하여 Pilchan Lee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It is significant that the eschatological scene is described in the Heavenly Temple vision. This demonstrates that *the Heavenly Temple scene in chs 4-5 already includes the eschatological occurrence*”(his italics) (Pilchan Lee, *The New Jerusalem in the Book of Revelation*, 250).

<sup>54</sup> 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08.

이러한 하늘의 기능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은 이와 동일한 패턴의 현상이 인, 나팔 그리고 대접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도표는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8:5, 11:19 그리고 16:18의 일곱 번째는 언제나 종말적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sup>55</sup>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직렬적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기간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병렬적 관계이다. 곧 동일한 종말적 심판의 정황을 세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56</sup>

### 2.2.3. 보좌 앞의 일곱 등불(5b)

보좌 앞의 일곱 등불은 속 4:2의 순금 등대 위에 있는 ‘일곱 등잔’(ἐπὶ τὰ λύχνοι)을 배경으로 한다. 속 4장의 이슈는 성전 건축에 있다.<sup>57</sup> 특별히 속 4:9에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 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이나 4:6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한 것은 그 언급의 핵심에 바로 성전 건축이 있는 것이다. 바로 성전 건축은 신적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 만큼 성전 건축의 현상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또한 성전 건축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58</sup>

속 4:2의 일곱 등잔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곧 일곱 등잔을 성전 건축의 확실성의 보장을 입증하기 위해 성전의 대표적 요소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등잔은 바로 성전을 밝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곱 등잔을 속 4:10에서 일곱 등잔을 ‘은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해석한다. 바로 계 4:6에서 일곱 등잔을 일곱 영이라고 하고 계 5:6에서는 스가랴 4장에서 일곱 등잔을 해석하는 ‘여호와의 눈’을 일곱 영이라고 한다. 이것은 계 4:6의 일곱 영 곧 일곱 등불은 속 4장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보좌 앞의 일곱 등불은 하늘을 성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일곱 등불을 통해 속 4장의 내용을 연상시켜 줌으로써 속 4장의 하나님과 그것을 읽는 독자들과 계 4장의 하나님과 그 내용을 읽는 독자들을 동일시 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속 4장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계 4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이를 통해 속 4장의 독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계 4장의 독자들로 하여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즉 속 4장의 독자들이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했다면 계 4장의 독자들도 역시 오직 여호와의 신

---

<sup>55</sup> 이 세 본문의 현상의 관계한 자세한 논증에 대해서는 R.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202-209을 참조하라.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sup>56</sup>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이필찬의 내가 속히 오리라, 309-316을 참조하라.

<sup>57</sup> Pilchan Lee, *The New Jerusalem in the Book of Revelation*, 46.

<sup>58</sup> R. L. Smith, *Micah-Malachi*, WBC 32 (Waco, Texas: Word Books, 1984), 204.

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sup>59</sup>

#### 2.2.4.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6a)

하늘에 있는 ‘바다’에 대해 Walvoord는 아무런 확실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개진한다.<sup>60</sup> 그러면서 그는 Alford의 견해를 제시한다.<sup>61</sup>

The primary reference will be to the ether in which the throne of God is upborne and the intent of setting this space in front of the throne will be, to betoken its separation and insulation from the place where the Seer stood, and indeed from all else about it.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Walvoord의 견해는 지나치게 회의론적이고 지나치게 사실적이다. 그의 해석은 보좌와 유리 바다를 사실적 존재로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이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하늘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고는 구약적 우주관에 기초한다. 창 1:7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창조의 기본적 골격으로서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여겨졌다. 이것은 다음 시편 말씀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시 104:3)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 148:4)

이러한 우주관은 성전의 구조에 또한 반영된다. 왕상 7:23-26과 대하 4:1-6에서 솔로몬은 성전에 솟으로 바다를 형상화 하여 설치하였다. 이것은 지상 성전이 하늘 성전을 모형으로 삼고 있으며 하늘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우주관을 잘 반영한다.

이 문구는 15:2의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평행된다. 이러한 관계로 4장의 ‘바다’는 15장의 ‘바다’에 의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2)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2)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먼저 15:2에서 ‘유리 바다’는 ‘불이 섞인’ 바다이다. 이것은 4장의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15장이 대접 심판의 문맥에서 주어지므로 ‘불’이라는 모티브가 덧붙여졌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유리 바다’의 공통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sup>59</sup> R.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163.

<sup>60</sup> 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09.

<sup>61</sup> H. Alford, *The Greek New Testament IV* (Chicago: Moody Press, 1958), 598. 이 자료는 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09에서 재인용.

위에서 인용한 15:2-3에서 보여 주는 유리 바다가의 광경은 흥미롭다. 그 바다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바다가에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여기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병행시키고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하늘의 유리 바다가에 서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리 바다를 출애굽 사건의 홍해 바다에 병행시키고 있다. 홍해 바다가 건너편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유리 바다가에 서 있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없다. 홍해를 건너는 일을 인도한 지도자가 모세였다면 하늘의 유리 바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재하게 한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사용되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유리 바다’는 곧 출애굽 모티브를 내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된다. 이 유리 바다에 의해 하늘은 곧 이 세상으로부터 출(出)하여 구원받은 안전한 장소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 2.2.5. 네 생물(6b-8절)

여기에서 네 생물을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표상이라고 간주하는 입장이 있다.<sup>62</sup> 이러한 네 가지 표상은 사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복음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네 생물 중 ‘사자’는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묘사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다.<sup>63</sup>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다. 이것은 마가 복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셋째로,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나타난다.<sup>64</sup> 끝으로 독수리는 그리스도의 천상적 원천을 제시한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다.<sup>65</sup>

위와 같은 주장은 요한 계시록 본문과는 전혀 관계 없는 해석이다. 네 생물을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유형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네 생물이 4:8에서 사 6:3의 스랍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내용과 조화롭지 못하다. 4:8의 네 생물의 모습은 사 6:3의 스랍들을 배경으로 묘사된다. 후자의 스랍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적 존재들일 뿐이다. 이러한 네 생물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더 나아가서 네 생물을 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들과 관련짓는 것도 인위적이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유형들을 일일이 의식하여 요한계시록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생소하다.

---

<sup>62</sup> H. Lindsey, *There's a New World Coming*, 87.

<sup>63</sup> Idem, *There's a New World Coming*, 87.

<sup>64</sup> H. Lindsey, *There's a New World Coming*, 87.

<sup>65</sup> Idem, *There's a New World Coming*, 87.

Walvoord에 의하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 혹은 본질에 대한 대표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66</sup> 이것은 성령을 일곱 등불로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이다.<sup>67</sup> 네 생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리지 않지만 어떤 속성을 나타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 되어 있다. 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네 생물에 대한 언급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에스겔의 본문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약적 배경으로서 겔 1:10의 네 생물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 겔 1:10의 네 생물은 다시 10:12-15, 19-22에서 등장하는 그룹들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네 생물의 네 가지 종류의 얼굴들은 공통적으로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들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탁월성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고 있다.<sup>68</sup> 곧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이고(민 23:24; 24:9; 사 14:18; 삼하 1:23; 17:10 등), 독수리는 공중을 나는 짐승 중에 가장 위엄이 있으며(신 28:49; 삼하 1:23; 렘 48:40; 렘애 4:19; 욥 39:27) 소는 농경 사회의 가축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짐승이며(잠 14:4; 욥 21:10; 참조 출 21:37) 사람은 만물을 대표하는 존재이다(창 1:28; 시 8:7).<sup>69</sup>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미드라쉬)에 의하면 “세상에 네 종류의 탁월한 존재가 창조되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람이고 날 짐승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독수리이며 금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소이며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사자이다; 그것들은 모두 거룩한 분의 바퀴(chariot) 밑에 위치해 있다”(Exodus Rabba 22:13)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상에서 네 생물의 특징은 피조물을 대표한 존재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표성은 우주적 의미를 제공해 주는 ‘넷’이라는 숫자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그러므로 네 생물에 의해서 피조물의 원천이 하늘에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적용된다. 먼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시사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가 가장 잘 구현된 곳이 바로 타락하기 전의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이야말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되었던 장소였다. 하나님의 보좌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며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충만하고 조화스럽게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늘의 모방이며 하늘은 에덴 동산의 원천이다. 4장에서 네 생물을 통한 에덴 동산의 원천으로서 하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피조 세계의 원천이 하늘에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21장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새 창조로서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전망하도록 돕고 있다.

결론: 정리

---

<sup>66</sup> J.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09.

<sup>67</sup> Idem,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09.

<sup>68</sup> M. Greenberg, *Ezekiel 1-20*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3), 56.

<sup>69</sup> Idem, *Ezekiel 1-20*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3), 56.

4장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개념과 그 기능에 대해 살펴 보았다. 먼저 하늘은 열려져 있어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가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하는 곳이다. 이것은 ‘보좌’라는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성도들이 동참한다. 이 사실은 또한 보좌 주위에 둘러 있는 24장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보석 모티브는 에덴과 성전의 원형으로서 하늘의 의미를 제공한다.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렛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것은 역시 하늘이 통치의 발현지로서 종말적 심판의 출현을 예고한다. 일곱 등불의 존재를 통해 하늘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가지며 속 4장을 배경으로 독자들의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 더 나아가서 수정 같이 맑은 유리 바다는 하늘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성도들의 안식처로서 취급된다. 끝으로 네 생물의 존재는 하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원천임을 밝혀 준다.

이상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수립되고 발현되는 곳이며 모든 피조세계의 원천이다. 이것은 계 4:11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내가 본 천국’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우리들이 사후에 가게 되는 내세적 존재도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을 읽을 때 객관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성격이다.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들이 매우 현저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이 본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보더 더 풍성한 내용들을 발굴해 낼 수 있다. 4장외에 다른 본문들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 참고 문헌

- Alford, H. *The Greek New Testament IV*. Chicago: Moody Press, 1958.
- Aune, D. *Revelation 1-5*. WBC 52. Dallas, Texas: Word Books, 1997.
- Bauckham, R.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T Clark, 1993.
- Bauckham, R.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 Greenberg, M. *Ezekiel 1-20*.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3.
- Isaac, E. “1 (Ethiopic Apocalypse of) Enoch: A New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in *OTP* 1:5-100.
- Lee, Pilchan. *The New Jerusalem in the Book of Revelation*. WUNT II/129. Tübingen: Mohr Siebeck, 2001.
- Lindsey H., *There's a New World Coming*. Irvine, California: Harvest House Publishers, 1973.
- Moloney, F. *The Gospel of John*. SACRA PAGINA 4.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8.
- Niehaus, J. J. *God at Sinai: Covenant & Theophany in the Bible and Ancient Near East*.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5.
- Osborne, G. R.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2002.

- Robertson, O. P. *The Christ of the Covenant*. Grand Rapids: Baker, 1980.
- Smalley, S. S. *The Revelation to John*. Downers Grove: IVP, 2005.
- Smith, R. L. *Micah-Malachi*. WBC 32. Waco, Texas: Word Books, 1984.
- Thomas, R. L. "The Chronological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2-3," *Bibliotheca Sacra* 124 (1967) 321-331.
- van Unnik, W. C. "A Formula Describing Prophecy," *NTS* 9 (1963) 86-94.
- Vos, L. A. *The Synoptic Traditions in the Apocalypse*. Kampen: J. H. Kok, 1965.
- Walvoord, J. F.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Chicago: Moody Press, 1966; paperback edi., 1989.
-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 유니온, 2006, 6<sup>th</sup> edi.
-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주해와 설교. 서울: 이레서원, 2007.